

치위생(학)과 학생의 긍정심리자본과 그릿(Grit)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지영[‡]

경북전문대학교 치위생과 조교수

The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Gri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i-Young Park[‡]

Dept. of Dental Hygiene, Kyungbuk College, Assistant professor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find out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grit through dental hygiene and curriculum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245 students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Results: In the sub-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ptimism ($\beta=.281, p=.000$), self-efficacy ($\beta=.334, p=.000$), elasticity ($\beta=.414, p=.000$), and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hope ($\beta=.105, p=.000$). and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grit ($\beta=.152, p=.000$).

Conclusions: Through continuous, long-term career education throughout college life,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dental hygiene students' internal motivati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grit, should be prepared.

Keywords Dental hygienist, Psychological capital, Gri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Received on Nov 25, 2022. Revised on Feb 26, 2023. Accepted on Feb 27, 2023.

[‡] Corresponding Author (E-mail: pjy8604@hanmail.net)

I. 서론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은 30-50대가 70% 이상이며, 20대는 57.4%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한 취업을 하락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사회활동에 진입하는 대학생들의 진로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1]. 또한, 현대사회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직업의 형태와 종류, 관념 등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구조도 빠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2]. 이로써 대학생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양질의 진로를 결정하기 어렵고, 구인 자체도 줄어들어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직업군의 변화와 일자리의 양극화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3].

한편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서도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탐색과 준비 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준비 행동을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진로준비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 진로에 대한 탐색이나 준비 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4].

진로준비 행동이란 개인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직업을 탐색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며[5],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결정을 위하여 직접 진로를 실행하려는 실천 행동과 진로와 관련된 직종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실제 면접을 위한 모의 면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6]. 이에, 진로준비 행동은 자신의 진로 선택을 위한 진로계획과 탐색 활동을 비롯한 성공적 취업을 위해 지속적인 준비 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셀프리더십 등의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지만[7], 대부분 간호학과와 타 전공 분야에서 이루어져,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배출되는 치위생 전공 졸업자 수는 5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배출되는 치과위생사의 수에 비해 치위생 전공 학생들이 주로 취업을 원하는 병원급의 치과위생사 수요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취업 스트레스 등에 노출[8]되고 있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충분한 진로준비 행동이 필요하다[9].

치위생 전공의 경우에는 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대한 인식이

높이기 위해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디십, 진로 결정 등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 측면을 다룬 연구[10]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장기적인 진로 목적달성이나 긍정적 내적인 요인과 관련한 인간의 심리적 속성을 반영한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긍정심리는 개인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요인이나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기능을 발휘하여 긍정적인 상태로 촉진시키는 심리적 속성을 말한다[11]. 긍정심리자본은 긍정심리에 자본의 개념을 확장한 개인의 심리 상태를 말하며, 심리적인 개인의 강점과 장점을 기반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개인의 발전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12]. 또한,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 회복 탄력성 등의 네 가지 긍정심리 수용요인을 통합하는 상위개념[13]으로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감정과 능동적인 행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며, 학업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몰입과 수행 등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14].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15],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능력[16],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과 직무착근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치위생 전공 학생의 진로와 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릿(Grit)은 개인이 좋아하는 일이나 진로목표를 위해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열정을 의미하므로[18]. 치위생 전공 학생들이 많은 학업 수행과 임상 실습 등의 진로준비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자신감을 느끼고 학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9]. 또한, 그릿은 다양한 연령과 직업에서 개인의 성취와 진로, 그리고 삶의 만족도 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그릿이 높을수록 진로준비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20].

이처럼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그릿은 치위생 전공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요인들으로써,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긍정심리자본과 그릿은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일 수 있다. 특히 긍정심리자본과 그릿은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긍정심리자본과 그릿 변인이 전공 교육과정에서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치위생 전공 교육과정에서도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진로준비 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의 치위생 전공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20일부터 2022년 08월 07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연구의 필요성을 듣고, 개인정보 동의한 학생만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응답지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G·power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표본 수를 유의수준은 0.05, 검정력은 0.95, 효과 크기는 0.15로 산출한 결과, 160명이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250명 중 불성실한 응답 문항을 제외하고, 총 245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수로 일반적 특성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는 성별, 학년, 종교, 전공 만족, 치위생(학)과 지원동기 등을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하였고,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구분하였다. 종교는 ‘없음’, ‘있음’으로 구분하였고, 전공 만족은 ‘상’, ‘중’, ‘하’로 구분하였으며, 치위생(학)과 지원동기는 ‘취업’, ‘가치’, ‘주변의 권유’, ‘적성’, ‘성적’으로 구분하였다.

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 측정 도구는 Luthans 등[21]이 대학생 질문지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의 측정 도구는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 탄력성의 4개 하위요인으로 자기효능감 4문항, 희망 3문항, 낙관성 3문항, 탄력성 3문항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심리자본의 측정은 3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으로 총점 3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위생 전공 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3) 그릿

그릿 측정 도구는 Duckworth 등[18]이 개발한 질문지(Grit-O)를 사용하였다. 그릿의 측정 도구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릿의 측정은 3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으로 총점 3점을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위생 전공 학생의 그릿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릿의

측정 도구는 2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나 요인분석에서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고, 12개의 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4) 진로준비 행동

진로준비 행동 측정 도구는 김과 김[22]이 개발한 질문지 총 16문항을 측정하였다. 진로준비 행동의 측정은 3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으로 총점 3점을 부여하였으며, 요인분석에서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치위생(학)과 학생의 진로준비 행동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3. 자료분석(통계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긍정심리자본, 그릿, 진로준비 행동의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준비 행동의 평균 차이는 t-test와 ANOVA 분석을 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 검정을 사용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과 그릿, 진로준비 행동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더미 변수화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분포는 '여학생' 96.3%, '남학생' 3.7%이었고, 학년은 '2학년' 44.5%, '1학년' 29.8%, '3학년' 14.7%, '4학년' 11.0% 순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 71.8%, '있는 경우'는 28.2%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은 '중' 49.8%, '상' 38.8%, '하' 11.4% 순이었으며, 치위생(학)과 지원동기는 '취업' 36.7%, '가치' 34.3%, '주변의 권유' 11.8%, '적성' 9.0%, '성적' 8.2% 순으로 나타났다.

2. 긍정심리자본, 그릿, 진로준비 행동의 기술 통계량

긍정심리자본, 그릿, 진로준비 행동의 기술 통계량은 <Table

2>와 같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은 3점 만점에 평균 1.83점이었고, 하위요인 낙관 1.83점, 자기효능감 1.67점, 탄력성 1.85점, 희망 1.98점이었다.

그릿은 3점 만점에 1.69점이었으며, 진로준비 행동은 3점 만점에 1.73점으로 나타났다.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준비 행동의 평균 차이

일반적 특성과 진로준비 행동의 평균 차이 검정은 <Table 3>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진로준비 행동은 학년($F=3.051, p=0.029$), 지원동기($F=2.186, p=.02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Duncan의 사후 검정결과, 학년에서는 1, 2학년과 3, 4학년 그룹, 지원동기는 가치, 적성, 성적과 주변 권유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Gender	Male	9	3.7
	Female	236	96.3
Grade	1	73	29.8
	2	109	44.5
	3	36	14.7
	4	27	11.0
Religion	Yes	69	28.2
	No	176	71.8
Major satisfaction	High	95	38.8
	Moderate	122	49.8
	Low	28	11.4
Application motivation	Get a job	90	36.7
	For value	84	34.3
	Aptitude	22	9.0
	According to grades	20	8.2
	Advice	29	11.8
	Total	245	100.0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N=245)

	Characteristics	M±SD
Psychological capital	Optimism	1.83±0.56
	Self-efficacy	1.67±0.45
	Elasticity	1.85±0.53
	Hope	1.98±0.49
	Grit	1.69±0.49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73±0.44

<Table 3> Mean differences i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5)

Characteristics		N	M±SD	t/F(p)
Gender	Male	9	1.59±0.38	-0.965 (.335)
	Female	236	1.73±0.44	
Grade	1	73	1.63±0.52 ^a	3.051 (.029) a<b
	2	109	1.66±0.42 ^a	
	3	36	1.69±0.46 ^b	
	4	27	1.85±0.41 ^b	
Religion	Yes	69	1.79±0.42	1.395 (.164)
	No	176	1.70±0.45	
Major satisfaction	High	95	1.68±0.44	1.029 (.359)
	Moderate	122	1.74±0.43	
	Low	28	1.82±0.51	
Application motivation	Get a job	90	1.71±0.44 ^{ab}	2.186 (.021) a<b
	For value	84	1.77±0.47 ^b	
	Aptitude	22	1.85±0.25 ^b	
	According to grades	20	1.78±0.46 ^b	
	Advice	29	1.53±0.41 ^a	

a<b: Duncan's post hoc test

4. 긍정심리자본, 그릿, 진로준비 행동 간의 상관관계

긍정심리자본, 그릿, 진로준비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낙관과 자기효능감($r=.415, p<.001$), 낙관과 탄력성($r=.383, p<.001$), 낙관과 희망($r=.453, p<.001$), 낙관과 그릿($r=.410, p<.001$), 낙관과 진로준비 행동($r=.487, p<.001$)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자기효능감과 탄력성($r=.423, p<.001$), 자기효능감과 희망($r=.402, p<.001$), 자기효능감과 그릿($r=.459, p<.001$),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r=.570, p<.001$)은 유의미한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탄력성과 희망($r=.401, p<.001$), 탄력성과 그릿($r=.328, p<.001$), 탄력성과 진로준비 행동($r=.515, p<.001$)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희망과 그릿($r=.581, p<.001$), 희망과 진로준비 행동($r=.698, p<.001$)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릿과 진로준비 행동($r=.959, p<.001$)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은 일반적 특성 가운데 진로준비 행동의 평균 차이 검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학년, 지원동기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낙관, 자기효능감, 탄력성, 희망)과 그릿을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1.904로 자기 상관이 없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0.576~0.889, 분산팽창계수(VIF)는 1.125~1.738로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진로준비 행동의 영향 요인 변수들의 회귀모형 설명력은 87.5%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 적합도로 나타났다($F=143.063, p<.001$).

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에서는 낙관($\beta=.281, p=.000$), 자기효능감($\beta=.334, p=.000$), 탄력성($\beta=.414, p=.000$), 희망($\beta=.105, p=.000$)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그릿($\beta=.152, p=.000$)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ptimism	Self-efficacy	Elasticity	Hope	Gri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ptimism	1					
Self-efficacy	.415***	1				
Elasticity	.383***	.423***	1			
Hope	.453***	.402***	.401***	1		
Grit	.410***	.459***	.328***	.581***	1	
Career Preparation behavior	.487***	.570***	.515***	.698***	.959***	1

*** $p<.001$

<Table 5> Impa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	.357	.049		7.238	.000		
Optimism	.175	.017	.281	10.294	.000	.687	1.456
Self-efficacy	.233	.021	.334	11.181	.000	.576	1.738
Elasticity	.276	.020	.414	13.897	.000	.579	1.727
Hope	.067	.015	.105	4.387	.000	.889	1.125
Grit	.098	.016	.152	6.210	.000	.862	1.160

Adj. R²=.875, F=143.063, p=.000
Durbin-Watson=1.904

* Control variable:

Dummy 2nd grade (reference variable: 1st grade: 0),

Dummy 3rd grade (reference variable: 1st grade: 0),

Dummy 4th grade (reference variable: 1st grade: 0),

Dummy application motivation: value (reference variable employment: 0),

Dummy application motivation: aptitude (standard variable employment: 0),

Motivation for applying dummy: grades (standard variable employment: 0),

Motivation for application: recommendation from others (standard variable employment: 0)

IV. 고찰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그릿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치위생 전공 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치위생 전공 학생의 진로준비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학업에 몰입하고, 진로준비를 수행하면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심리자본과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끈기와 노력에 해당하는 그릿이 진로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14].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은 치위생 전공 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낙관, 자기효능감, 탄력성, 희망)은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낙관주의는 진로준비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 생각이나 태도로 미래에 좋은 진로목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 행동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을 말하고, 탄력성은 진로준비에서의 실패나 역경, 실의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이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현실의 어려움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다양한 성과 활동을 수행한다는 선행연구[23]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치위생

전공 학생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프로그램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그릿은 진로준비 행동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그릿과 진로준비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2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치위생 전공 신입생부터 개인의 동기부여와 함께 전공과 관련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으로 치위생 전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치위생 전공 학생들은 명확한 진로계획을 가지고, 진로목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 진로와 관련된 준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진로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진로 교육을 통해 치위생 전공 학생들의 내적 동기인 긍정심리자본과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제한하여 조사하여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진로준비 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주요 변인을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는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비대면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대 흐름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 치과위생사의 적극적인 진로준비를 위한 방향 설정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추후 치위생

전공 학생의 진로 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치위생 전공과 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요인(낙관, 자기효능감, 탄력성, 희망)과 그릿은 진로 준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긍정심리 자본의 하위요인인 낙관, 자기효능감, 탄력성, 희망과 그릿에서 진로준비 행동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심리자본과 그릿이 높을수록 치위생 전공 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향후 치위생 전공 학생의 진로준비 행동을 향상하기 위한 체계적인 학생상담과 모형구축이나 중재를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Park JY, Lee SB: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self-determination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4):239-252, 2022. DOI: 10.17703/JCCT.2022.8.4.239
2. Jung KH: Can I reach my students via technology?: A report on a teacher's existential crisis amid non-face-to-face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3(2):245-271, 2021. DOI: 10.15754/jkpe.2021.43.2.011
3. Kim SR: Perceptions toward job changes due to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11):528-542, 2021. DOI: 10.5392/JKCA.2021.21.11.528
4. Pyoun JS: College students' delayed graduation and employment achievement : focusing on the effects of employment-oriented delay on the employment outcome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6):228-236, 2017. DOI: 10.5762/KAIS.2017.18.6.228
5. Ko YJ, Kim NS: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mediated by career decision lev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4):301-308, 2020. DOI: 10.14400/JDC.2020.18.4.301
6. Jang TJ, Moon MK: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2(4):344-352, 2016. DOI: 10.11111/jkana.2016.22.4.344
7. Jeong H, Cho MK: The influence of gri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3(1):467-475, 2022. DOI: 10.15207/JKCS.2022.13.01.467
8. Ji MG, Lee MR: The effects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n job-seeking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ome dental hygiene.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1(11):195-203, 2021. DOI: 10.22156/CS4SMB.2021.11.11.195
9. Han KC, Lee H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job-search 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job-seeking stress and ego-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1(3): 967-995, 2019. DOI: 10.23844/kjcp.2019.08.31.3.967
10. Min KH, Do YJ, Min HH: The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0(4):525-533, 2020. DOI: 10.13065/jksdh.20200048
11. Seligman MEP: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prevention, and positive therap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2:3-9, 2002.
12. Luthans F, Youssef CM, Avolio BJ: Psychological capital: Investing and develop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1(2):9-24, 2007. DOI: 10.4135/9781446212752
13. Luthans F, Luthans KW, Luthans BC: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45-50, 2004. DOI: 10.1016/j.bushor.2003.11.007
14. Nguyen TD, Nguyen TTM: Psychological capital, quality of work life, and quality of life of marketers: evidence from Vietnam. *Journal of Macromarketing* 32(1):87-95, 2012. DOI: 10.1177/0276146711422065
15. Cho MS, Park JH, Jang KA: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llege life adaptation in freshmen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10):195-202, 2019.
DOI: 10.22156/CS4SMB.2019.9.10.195
16. Park JH, Jang KA, Cho MS: The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communication skills and interpersonal skill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10(6):193-199, 2020.
DOI: 10.22156/CS4SMB.2020.10.06.193
17. Lee HO, Han YS: The effect of work environmen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job embeddedness in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22(1):47-54, 2022.
DOI: 10.13065/jksdh.20220006
18. Duckworth AL, Peterson C, Matthews MD, Kelly DR: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2007.
DOI: 10.1037/0022-3514.92.6.1087
19. Kim YH: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grit on clinical reasoning competence of graduated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Next-generation Convergence Technology Association* 6(10):1883-1892, 2022.
DOI: 10.33097/JNCTA.2022.06.10.1883
20. Lee NR, SEO HS, Lee SG: The effect of gri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smetology students. *Journal of Beauty Art Management* 16(3):109-129, 2022.
DOI: 10.22649/JBAM.2022.16.3.109
21. Luthans BC, Luthans KW, Jensen SM: The impact of business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capital on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87(5): 253-259, 2012.
DOI: 10.1080/08832323.2011.609844
22. Kim HM, Ra YA: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0):13705, 2022.
DOI: 10.3390/ijerph192013705
23. Lim SW, Jung HS, Song MS: The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professor suppor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2(4):386-395, 2021.
DOI: 10.5762/KAIS.2021.22.4.386
24. Lee HB, Ham KS: The social support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physical educ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1(10):809-818, 2021.
DOI: 10.22251/jlcci.2021.21.10.809